



프레지던트컵 개막...인터내셔널팀 "파이팅"

2015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를 이틀 앞둔 6일 인천시 연수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인터내셔널팀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크 맥널티, 배상문, 스티븐 보디치, 제이슨 데이, 브랜든 그레이스, 통차이 제이디, 아니르반 라히리, 닉 프라이스, 최경주, 대니 리, 마크 레시먼, 히데키 마쓰야마, 루이스 우스투이젠, 찰 슈워젤, 아담 스콧, 토니 존스턴. > 관련기사 21면 /연합뉴스

최하위 후보서 5강 싸움 중심까지...시즌 마친 KIA 선수들의 특목

KIA 타이거즈가 6일 안방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144경기의 대장정을 끝냈다. 최하위 후보였지만 불꽃 같은 6연승을 달리며 막을 열었던 시즌, 끝까지 가는 야구로 5강 싸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다. 아쉽게 좌절된 가을잔치의 꿈 그래서 선수들은 진한 아쉬움으로 2015시즌을 돌아봤다.

“의미없다”

양현종, 평균자책 1위·16승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 = 2.44의 평균자책점으로 팀 유일의 타이틀 홀더가 된 양현종. 184.1이닝을 소화하면서 16승도 기록했지만 양현종에게는 '의미 없는 기록'이다. 양현종은 "마지막 경기라니 아쉬운 마음뿐이다. 팀이 가을잔치에 못 갔기 때문에 나의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안 아프고 내 공을 던졌어야 했었다"며 에이스의 책임감과 아쉬움을 말했다.



▲하고 싶은 것을 더는 못하네요 = 시원보다는 섭섭함이 큰 이흥규였다. 차세대 안방마남으로 주목받으며 프로 데뷔 3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도 때려냈던 만큼 시즌이 끝나는 게 섭섭한 이흥규. 이흥규는 "마지막에 하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해서 섭섭하다. (그라운드를 가리키며) 또 여기에서 하고 싶은 야구를 당분간 하지 못한다는 게 서운하다"고 말했다.

▲다시 그라운드를 밟았으니 = 새로운 팀에서 가을 잔치를 하겠다는 베테랑 김광수의 꿈은 실패로 끝났다. 그래도 그는 어려움을 딛고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었던 올 시즌이 감사하다. "아쉽게 가을잔치는 못했지만 이렇게 그라운드를 밟고 야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 LG와의 첫 경기, 6연승을 하던 한화와의 경기 기억에 남는다. 친정팀을 상대로 내 모습을 보여

“심쿵심쿵”

윤석민, 30S·5강 좌절 마음 아파

▲심쿵심쿵이요 = 윤석민은 2015시즌을 '심쿵심쿵'으로 표현했다. 심장이 콩팥거리다는 표현. 윤석민에게는 다시 돌아와 선 KIA 마운드, 30개의 세이브가 만들어지던 순간 그리고 팀의 5강이 좌절되던 순간이 모두 가슴 떨린 추억이 됐다. 윤석민은 "심쿵심쿵, 두근두근이었다. 아쉬움이 남지만 익숙한 사람들과 다시 야구를 하며 의미있는 시즌을 보냈다"고 밝혔다.



주면서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간절했던 마음 잊지 않겠다 = 스프링캠프에서 예상치 못한 시즌을 예고했던 한승혁. 부상으로 속살이를 하면서 뒤늦게 뛰어난 시즌, 두산 정수빈에게 역전 홈런을 허용하며 2015시즌 마지막에도 아픈 기억이 남았다. 하지만 자신을 키울 거름으로 삼겠다는 한승혁이다. "중간에서 선배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내가 더 잘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올 시즌의 간절했던 마음 잊지 않고 믿음을 줄 수 있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겠다."

▲한 번만 더해보고 싶어요 = 올 시즌 마지막 경기라는 것이 서운하지만 백용환이다. "두 게임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5강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말한 백용환은 "섭섭하지만 마지막까지 재미

“목표달성”

이범호, 250홈런...선수들 의욕 성과

▲내(나)하고 연습 많이 하기로 했어요 = 주장 이범호는 "우리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게 마지막을 결정했다. 그래도 좋은 시즌이었다. 팀 수비력도 좋아졌고 선수들의 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뀌었다. 개인적으로는 250홈런을 꼭 치고 싶었는데 그걸 이뤘다"고 말했다. 또 올 시즌 부진했던 나지완에 대한 이야기나오자 "내하고 연습 많이 하기로 했다"며 웃음 지었다.



있게 야구를 했다. 믿음을 주신 감독님에게 감사하다. SK전 대타로 나와서 역전 스리런을 쳤던 게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 여전히 패배 기억이 기본이 좋지 않다는 박준표였다. 박준표는 "두산전 역전패를 당하고 나서 잠을 못 잤다. 내가 막았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인데 나 때문에 팀이 진 것 같다. 아쉽게 끝이 났지만 올 시즌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무조건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고 밝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을 잊지 못해요 = 잘 달려왔던 시즌이었지만 마지막이 아쉽고 미안한 박찬호다. 절박하게 바빴던 5강 끝이 깨진 날의 허탈함을 말한 박찬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삼성전에서 많은 실수를 했다. 마지막날인데 웃을 수가

“잇고 싶다”

슬럼프 극복 못한 나지완

▲잇고 싶어요 = 나지완에게는 잇고 싶은 시즌. 4번 타자로 기대를 모았던 나지완은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조금만 더 역활을 했더라면 하는 미안함으로 맺은 마지막날. 나지완은 "잇고 싶다. 동료와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약물같았던 2015시즌과 작별을 고했다.



없다. 더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냥 다 아쉬워요 = 고졸 루키 박정수에게는 재미있었지만 아쉬웠던 게 더 많은 데뷔 시즌이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박정수는 "부족한 게 많아서 그냥 다 아쉽다. 그래도 1군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배웠다. 군대에서 내가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고 더 강해져서 오겠다"고 언급했다.

▲돌리다가 맞았어요 = 자신감으로 무장한 고졸 루키 황대인에게도 프로의 벽은 높았다. 그래도 5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김주형과 함께 백투백 홈런을 기록하며 프로 첫 시즌에서 두 차례 손맛을 본 황대인. "두 번 모두 백투백 홈런이었다. 낯선 선수들의 낯선 공을 보면서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돌리다가 맞았다. 순유 싸움도 해보고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秋신수

9월 '이달의 선수'

미국프로야구 후반기에 폭발적인 타격을 선보이며 소속팀인 텍사스 레인저스의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이끈 추신수(33)가 5일(현지시간) 리그 9월의 선수에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9월에만 타율 0.404, 출루율 0.515를 기록하며 텍사스의 대역전 1위를 이끈 추신수를 '이달의 선수'로 뽑았다고 발표했다.

추신수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08년 9월 이후 두 번째다. 추신수는 당시 타율 0.400, 출루율 0.464, 장타율 0.659와 함께 홈런 5개와 24타점을 올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인 메이저리거로도 두 번째다. 앞서 1998년 7월 박찬호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으로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로 뽑힌 바 있다.

정확히 7년 만에 '이달의 선수'를 다시 차지한 추신수는 지난달에도 홈런 5개와 20타점을 수확했다. 특히 지난달에 규정타석을 채운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 중 가장 높은 타율과 출루율을 찍었다. 또 안타 42개와 득점 26개는 각 부문 공동 1위다. 텍사스 구단 역사상 9월에 100타수 이상 기록한 타자 중 타율 4할을 넘긴 건 추신수가 처음이다. 추신수는 또 2011년 마이크 나폴리(0.518) 이후 텍사스 역대 타자 중 9월에 가장 높은 출루율을 남겼다. /연합뉴스

광주 장애인 생활체육 개막

광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가 펼쳐진다.

6일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제 9회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이 7일 오후 3시 광주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회식을 갖고 10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열린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축전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회로, 모두 2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9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지역 19개 장애인체육 가맹경기단체와 33개 생활체육클럽, 특수학교·학급 소속 장애인들이 참여 종목경기와 화합경기로 나눠 진행된다. 종목경기의 경우 파크골프와 수영, 탁구, 볼링, 보치아, 론볼, 게이트볼 등 9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화합경기는 '지구 굴러라', '피라미드 탐험기', '풍선 탐험기', '판 뒤집기' 등 6개 종목으로 나누어 열린다.

이명자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광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파이팅! 제96회 전국체전 광주시 선수단 결단식

제 96회 전국체육대회(16일~22일)를 앞둔 6일, 광주시 선수단이 염주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 선수단은 46개 종목에 전체 1298명의 선수·임원이 참여한다. 고등부도 38개 종목에 482명의 선수가 참여, 소프트볼(명진고), 레슬링 자유형(박은영 광주체고1년), 태권도(한지수 체단고 3년, 채수인 국제고 2년), 유도(광주체고 김한수 3년), 양궁(정시우 광주체고 2년) 등에서 금메달(12개 예상) 사냥에 나선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